

# 목포시 북항 '뒷개' 일원 '청년골목' 으로 거듭난다

### 행안부 공모 선정...2025년까지 '골목 경제 활성화' 사업 홍보 전광판·경관 조명 등 환경 개선...상인 역량 강화 교육 바다 매립 이전 시민들의 추억 되살려 특화거리 조성키로

목포시 북항 '뒷개' (원산동) 일원이 오는 2025년까지 '청년골목'으로 거듭난다.

목포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역 특성 살리기 공모사업' 맞춤형 골목 경제 활성화 분야 대상지에 최종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역 고유의 특성을 활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전국 169개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목포를 포함한 27곳이 선정됐다. 목포시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북항 뒷개 일원의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벌인다.

중앙부처 실무자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실무 검토와 서면 심사, 현장 심사 등을 벌여 목포시 등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목포시는 국비 4억5000만원과 도비 1억3500만원 등 총사업비 9억원을 확보했다.

북항 뒷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청년이 활동하기 좋은 '뒷개 청년골목'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북항상가변영회가 이번 골목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상가변영회에는 모두 92개소 소상공인이 활동하고 있다.

홍보 전광판을 설치하고 경관 조명을 꾸미는 등 골목 환경을 개선하고, 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북항은 이른바 '뒷개'로 불린다. 이곳은 시민들이 바다에서 헤엄치고 물고기 잡던 낭만의 장소였다. 바다를 매운 후에는 상권이 들어섰다.

이 지역은 상권 공동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낙후된 지역이라는 오명을 안아왔다.

목포시는 북항 뒷개의 관광자원을 활용해 특화 거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골목 바닥에는 바다가 매립되기 이전 시민들의 추억이 서린 이야기를 담을 예정이다.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불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상권을 회복하기 위해 지속해서 상인 교육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뒷개 청년골목 상권 활성화 사업 외에 전남에서는 고충 '사랑방 손님'과 '유자역사관', 진도 '녹진관광지 상권 특화거리 조성' 전남도 '전남일자리 플랫폼 서부센터 시설 개선' 등이 지역 특성 살리기 사업을 펼친다.

목포시는 내년 예산 확보와 함께 입차료 문제를 논의하고, 관련 단체·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골목상권의 대체 불가능한 고유 특성을 최대한 살려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행안부 공모 '지역 특성 살리기 공모사업' 평가단이 목포 북항 뒷개 일원을 찾아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목포시 제공>

# 영광군 모싯잎떡 연매출 300억원 돌파

### 2009년 60억에서 꾸준한 성장 60여 업체 연간 3600t 생산 인공색소·화학첨가물 배제

영광군은 대표 특산품인 모싯잎떡이 성장세를 거듭해 연매출 300억원을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

영광모싯잎떡은 본격적으로 시장에 선보인 지난 2009년 매출 60억원 규모로 시작했다.

이후 전국적인 인기를 끌며 연간 3600t 생산 규모로 성장했다.

영광군과 사단법인 영광에서 모싯잎 떡을 만드는 사람들(영모사)은 18일 '2023 국제농업박람회'에 참가해 영광모싯잎떡 알리기에 나섰다.

이번 홍보는 농기형 떡 가공상품 마케팅 기술지원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참가자들은 '지방소멸 막고 기후위기 예방하는 영광모싯잎떡'을 내걸고 상품 홍보를 했다. 방문객을 대상으로 모싯잎떡 시식 행사도 열었다.

영모사에는 영광지역 68개 모싯잎떡 생산 업체가 활동하고 있다.

영모사 측은 "올해 추석 영광모싯잎떡의 선물용 판매가 늘었다"며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송편보다



'영광에서 모싯잎 떡을 만드는 사람들' 회원들이 18일 순천에서 열린 국제농업박람회에 참가해 영광모싯잎떡을 홍보하고 있다. <영광군 제공>

지역 원료 활용 비율이 높고 인공색소·화학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 비결"이라고 말했다.

영광군 농업기술센터와 지역 생산업체들은 지역 원료곡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브랜드 개발, 품목 다변화, 대형 떡 가공업체 유치 협약 등을 진행하고 있다.

고윤자 영광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영광형 떡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 현안인 지방소멸·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농부-생산자-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상생형 특산물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 무안갯벌낙지축제 성공 개최 힘 모은다

### 군-어촌계 간담회...27~28일 낙지거리·중앙로 등서 개최

'낙지의 고장' 무안군이 2023 무안갯벌낙지축제(27~28일) 성공 개최를 위해 어촌계와 머리를 맞댔다.

무안군은 무안지역 어촌계 협의회와 최근 세 차례에 걸쳐 무안갯벌낙지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한 간담회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축제 기간 원활한 낙지 수급을 위해 마련됐다.

무안군은 축제 개최 이틀 전부터 낙지를 목포 수협 도리포 위판장에 위판해줄 것을 어촌계에 당부했다.

2023 무안갯벌낙지축제는 오는 27일부터 18일까지 무안을 낙지거리, 낙지골목, 중앙로 일원에서 열린다. 청정 무안갯벌의 대표 수산물인 낙지를 알리고 지역 특산물을 판매·홍보하기 위해 마련된다.

나재철 무안군 해양수산과장은 "축제 개최 전까지 지역 어촌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낙지 수급 해결을 도모할 것"이라며 "어업인의 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들어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신안군 '정원해설사 양성교육 심화과정' 참가자들이 오는 12월8일까지 진행되는 교육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 신안군 정원해설사 양성 박차 세계적 섬 정원도시 꿈 영근다

세계적인 섬 정원도시 도약을 내건 신안군이 정원해설사를 양성하고 있다.

신안군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12월8일까지 8주간 '정원해설사 양성교육 심화과정'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심화과정을 듣는 교육생은 '정원해설사 양성교육 기초과정'을 수료한 교육생 28명이다.

이들은 신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정원과 수목 자원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정원해설을 할 수 있도록 교육받는다.

사단법인 한국여행작가협회 회장을 지낸 이종원 작가가 '지역정원의 이해와 해설 실제 우수사례'를 주제로 강단에 선다.

한국여행작가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희상 작가는 '정원이야기로 시나리오 작성하기' 특강을 한다.

이번 교육을 통해 1004명 신안의 사계절 꽃피

는 정원을 더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을 것으로 신안군 측은 기대했다.

신안군은 '1섬 1정원' 조성을 역점 시책으로 삼고 정원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27년까지 섬 국가정원·생태 정원도시 조성을 목표로 14개 읍면 30곳에 정원과 숲길을 꾸미고 있다.

정원해설사 교육은 주민과 공동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이끌고 가점마다 정원문화를 확산할 기회로 신안군은 내다봤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유럽 선진국 등 정원문화가 오랜 기간에 걸쳐 자리 잡은 국가에서는 정원 중심의 정원관광이 활성화됐다"며 "신안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품격 높은 정원해설로 다시 찾고 싶은 신안을 만드는 데 일조해 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영암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 27일까지 20명

영암군은 '2023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20명을 이달 27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최장 1년간 월 10만원의 주거비(월세)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일 기준 영암군에 사는 19~49세이면 신청할 수 있다.

보증금 1억원·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 1인 가구여야 한다. 일정 소득 기준도 적용된다.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올해 1월부터 임대료부터 소급해 12월까지 최고 120만원을 지원한다.

본인이나 위임장을 가진 대리인이 제출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 누리집 '고시공고'나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정책지원팀(061-470-255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암=전병헌 기자 jbh@kwangju.co.kr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완도타워에서 '2023 완도 국화 전시회'가 열린다. 지난해 전시 모습. <완도군 제공>

# 20일~11월 5일 완도타워 국화 전시회... '가을 섬 여행' 연계

해발 132m에 솟은 완도타워 일대가 1만6500송이 국화로 물든다.

완도군은 20일부터 11월5일까지 17일간 완도읍 군내리 완도타워 일원에서 '2023 완도 국화 전시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국화 전시회는 '2023 청정 완도 가을 섬 여행'

(20~29일)과 연계해 진행한다.

행사장에서는 국화 1만6500송이가 색색의 아름다움을 뽐낸다.

국화로 만든 굴 길과 돌고래, 조개 의사 등 다양한 조형물을 마련해 볼거리를 제공한다.

완도타워 1층에서는 완도사랑국화동호회원들의

국화 분재 52점을 전시한다.

완도사생회의 서양화와 예전갤러리의 동양화 전시, 완도군문인협회에서 준비된 시화전도 진행된다.

이복선 완도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완도의 탁 트인 바다와 함께 활짝 핀 국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행사를 마련했다"며 "다른 국화 축제와 차별화된 덕분에 해마다 방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 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 진도군 '찐나부네 맛나부네' 곧 끝나부네

### 20일 아리단길서 6개월 대장정 마지막 축제...맛집 자랑·공연 등

진도군이 20일 오후 6시 진도읍 아리단길에서 '찐나부네 맛나부네' 행사를 열며 올해 이 축제의 여정을 마무리한다.

진도읍 남문로 상권 부활 사업 '홍나는 거리 조성'의 하나로 마련된 이 행사는 5월 시작해 이달 다섯 번째로 열린다.

그동안 '찐나부네' 축제는 복고와 물놀이, 한여름 밤 등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특색있게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진도의 맛·맛·흥을 느낄 수 있도록 꾸며진다. 동네 맛집 자랑과 국악 앙상블 '아리락' 공연, 울금떡 만들기, 과자 목걸이 만들기, 공예품 시장 등이 운영된다. 방문객들은 동네 맛집 자랑에 참여한 식당의 음식을 시식하고 한 표 던질 수 있다.

/진도=이중수 기자 js7777@kwangju.co.kr